이감 국어 모의고사

01

season 1

예비평가 지문분석

[2023학년도 시즌1 제1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4~9] 인문-사회 통합
약한 결정론과 책임 조각 사유

*** 지문 평가**

(가)에서 제시하는 '약한 결정론'의 입장을 기반으로 (나)의 '책임'과 '책임 조각 사유'를 이해해야 하는 전형적인 통합 지문이다. 주제 통합형 지문에서는 항상 (가)에서의 문제 제기, 논의 등이 (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주목해야 한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인문 - 서양 철학 - 자유 의지, 결정론

자유 의지, 강한 결정론, 약한 결정론, 죄의 억제, 책임 추궁

(나) 사회 - 형법 - 책임 조각 사유

형법,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조각, 책임, 형법 제10조 1항, 심신 상실, 형법 제10조 2항, 심신 미약, 형법 제10조 3항, 형법 제12조

*** (가) 지문 분석**

 # 문단1 : 강한 결정론

1)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은 그 행위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행위자에게 **자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철수가 자유롭게 선택한 일이 아닌데도 철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즉 철수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유 의지']이 없었다면, 철수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우리의 직관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지만 **'강한 결정론'**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맥락 짚기] '강한 결정론'이 있다면 반대로 '강하지 않은 결정론'도 등장할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읽어 보자.

⇒ 한마디로 '강한 결정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정하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친다.

3) 강한 결정론에 따르면 자연이 필연적인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듯이 인간 역시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가령 빗방울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진다. 이는 중력이라는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지, 빗방울이 어떤 목적성을 갖기 때문이 아니다.

⇒ '강한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처지 역시 빗방울과 다르지 않다. 인간의 행위 역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4) 인간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사건은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 어느 시점에 그것이 일어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 의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 3)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론이다. 결국 '강한 결정론'은 자유 의지의 존재를 부정한다.

5) 강한 결정론이 옳다면 도덕이나 법을 통해 인간의 행위에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는 근거를 잃는다.

⇒ 1)의 전제를 인정한다면 도출되는 '강한 결정론'의 논리적 귀결이다. 철수가 길을 걷다가 '강한 결정론자'의 뺨을 때린다 하더라도, '강한 결정론자'는 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강한 결정론자' 입장에서 철수의 행위는 그저 인과 법칙의 결과에 불과할 뿐, 철수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 2)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강한 결정론'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른다. 첫 번째, 인과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유 의지의 존재도 인정하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한다. 두 번째, 인과 법칙의 존재를 아예 부정한다.

 # 문단2 : 약한 결정론

1) 이와 달리 결정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과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을 **'약한 결정론'**이라 한다.

⇒ '약한 결정론'은 첫 번째 방법을 택했다. 즉 이는 모든 사건이 선행 원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더라도 자유 의지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맥락 짚기] 이제부터는 '약한 결정론'이 어떻게 인과 법칙의 존재와 자유 의지의 존재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자.

2) 약한 결정론은 인간의 행위에 선행 원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원인[→ 선행 원인]에 의한 결과가 항상 하나의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 인과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유 의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보는 '강한 결정론'과 달리, '약한 결정론'은 선행 원인에 의해 항상 하나의 불가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에 따르면 자유란 원인이 없다거나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 인과 법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

⇒ 이건 문단1-4)의 '강한 결정론'의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모든 사건에는 선행 원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자유 의지 또한 존재할 수가 없다.

4) …… 외적 강제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강제나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행위는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내적인 욕구나 신념 체계에 따라서 그 행위가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선행 원인을 갖는다[→ 여전히 인과 법칙의 존재를 인정한다.].

⇒ 하지만 '약한 결정론'은 자유 의지를 이렇게 새로이 정의한다. 선행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그 결과인 행위가 외적 강제나 구속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히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

5)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자유 의지에 따라 그것을 선택한 것이기에 그것이 불가피한 결과인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약한 결정론'을 따르면 인간의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 문단3 : 처벌에 대한 관점 차이

1) 강한 결정론은 범죄자가 처벌받는 상황을 인과론적 측면에서의 **'죄의 억제'**로 설명한다. 이때의 처벌이란 범죄를 행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일반인들을 보호하거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행위를 한 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 '강한 결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범죄를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처벌의 근거로 '죄의 억제'를 제시하나 보다. 소위 '예방주의'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2) 반면 약한 결정론은 어떤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즉 누군가를 처벌하는 근거는 [자유 의지에 의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다.

⇒ 반면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 의지가 가능한 만큼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소위 '책임주의'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3) 이렇게 처벌의 근거를 책임 추궁으로 보면 강제나 구속에 의해 행위자가 다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 자유 의지에 의하지 않은 행위]인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행위는 자유 의지에 따른 행위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목] 중요하다. '약한 결정론'에 따르면 외적 강제나 구속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이때의 강제나 구속은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 질환 등에 따른 심리적 억압과 같은 정신적인 것도 해당된다.

⇒ 처벌에 관한 두 입장의 차이를 정리하면서 넘어가자.

강한 결정론	책임을 부정 ⇨ 범죄의 처벌 = '죄의 억제'
약한 결정론	책임을 인정 ⇨ 범죄의 처벌 = '책임 추궁'

*** (나) 지문 분석**

 # 문단1 : 범죄의 성립 요건과 책임 조각 사유

1) **형법**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맥락 짚기] (가)에서는 자유 의지와 책임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면, (나)에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 (가)를 의식했을 때, (나)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주목해야겠다.

2) 형법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뜻하는 **'구성 요건 해당성'**, ……

⇒ 우선 해당 행위가 법이 정한 범죄의 요건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3) …… 객관적으로 현행 법질서에 반했음을 뜻하는 **'위법성'**, ……

⇒ 그런데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해서 항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넘어가도 큰 상관이 없겠다. 독해의 흐름상 '책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 가령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형 집행인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실제로 저지르는데 이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충족시킨다.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사형 집행과 같은 정당한 법질서에 의거한 행위까지도 범죄에 해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4) …… 행위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책임성'**이 그것이다.

⇒ 문단1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겠다. 설령 누군가를 실제로 살해하였고[→ 구성 요건 해당성 충족] 그것이 현행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 위법성 충족]였어도,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다.

5) 다만 책임이 **조각(阻却)**되는 사유[→ 책임 조각 사유], 즉 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때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형법은 약한 결정론의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 책임성을 충족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가)의 문단3-3)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 부합한다.

6) 여기서 **책임**이란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한 행위를 선택한 것에 대해 형법적 비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 책임에 대한 엄밀한 법적 정의다.

7)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었다[→ 자유 의지를 따를 수 없었다]면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책임성은 자유 의지에 의해 적법하게 행동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외적 강제나 구속에 의해 자유 의지가 제한받는 상황이었다면 형법적 비난 가능성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 잘 부합한다[(가)의 문단2-4)].

 # 문단2 : 책임 조각 사유와 관련한 조항 (1)

1) 형법은 자유 의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문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

⇒ 형법의 특정 조항에서 자유 의지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약한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 …… 행위자의 정신 능력과 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

⇒ (가)의 문단3-3)의 표현을 끌어오자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외적 강제나 구속에 의해 다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유 의지에 의해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성'을 따진다는 뜻이다.

3) 예를 들어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심신 상실** 상태의 행위로 보고 이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 상실 상태의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 심신 상실 상태의 행위자는 적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또한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를 **심신 미약** 행위로 보고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과 4)의 행위를 잘 구분해야만 한다. '심신 상실 행위'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다.

⇒ 반면 '심신 미약 행위'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게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게 있는 자의 행위를 가리킨다. 3)보다는 더 나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다.

5) 심신 미약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범죄는 성립하지만[→ 책임 조각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의사 결정이 자유로운 경우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책임의 크기에 맞춰 형을 낮춘 것이다.

⇒ 심신 상실과 심신 미약의 차이를 잘 정리하고 넘어가자.

심신 상실	심신 미약
의사 결정 능력 없음	의사 결정 능력 미약
⇩	⇩
책임 조각	범죄 성립 ○
⇩	⇩
범죄 성립 ×	감경

 # 문단3 : 책임 조각 사유와 관련한 조항 (2)

1) 그런데 **형법 제10조 3항**은 1항이나 2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심신 장애에 빠지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행위자가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 조각이나 감경을 행하지 않고 처벌한다.

[주목]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의 행위자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스스로 의도하여' 심신 장애를 야기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다. 문단2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 가령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A가 만취 상태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심신 미약 상태의 행위가 맞다. 따라서 A의 책임은 감경된다. 하지만 사실 온전히 자신의 선택에 의해 만취 상태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스스로 심신 미약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

2) 심신 장애를 스스로 일으키는 행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를 최종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의 행위[→ 자유 의지에 따를 수 있는 자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 심신 장애 상태에서의 행위는 불법을 저지를 의사의 결과일 뿐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우리 형법이 취하고 있는 '약한 결정론'의 관점에서도 이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약한 결정론' 역시 선행 원인에 의한 인과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어떤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심신 장애를 야기하였다면, 그로 인한 심신 상실/미약은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인 불법 행위 역시 최초의 자유 의지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심신 장애 야기[→ 자유 의지] ⇨ 심신 상실/미약 ⇨ 불법 행위

3) 한편 **형법 제12조**에 따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에 대해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인해 강요된 행위 역시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

⇒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 역시 책임을 묻기 힘들다. 문단 1-6)의 '책임'의 법적 정의를 다시 상기하자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한 행위를 선택했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이 조항은 강요로 인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나 그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해당 조항은 이런 점에서 앞선 형법 제10조 1, 2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강요로 인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닌 만큼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5) 다만 강요로 인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조각하는 것이다.

⇒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6) 예외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미끼로 협박당하고 있는 상황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만 신체 및 생명과 직결되는 위해가 아닌 재산상의 피해는 형법 제12조의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0~13] 기술

인메모리 컴퓨팅과 온디스크 컴퓨팅의 인덱스

*** 지문 평가**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잘' 읽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지문이다. '인메모리 컴퓨팅'과 '온디스크 컴퓨팅'의 목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왜 다른 인덱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좋은 독해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컴퓨터 과학 - 자료 구조, 트리

CPU, 접근, 메모리, 인메모리 컴퓨팅, 디스크, 온디스크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키, 주소, 인덱스, B 트리 인덱스, B 트리, 노드, 부모 노드, 자식 노드, T 트리 인덱스, T 트리

*** 지문 분석**

 # 문단1 : CPU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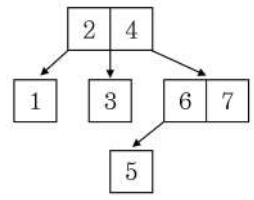
1) 데이터는 메모리나 디스크에 저장되며 컴퓨터의 **CPU(중앙 처리 장치)**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일을 **'접근'**이라 하는데, 메모리에의 접근 속도는 디스크에 비해 10만 배 빠르다.
   ⇒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디스크보다는 메모리에 있는 편이 좋다고 한다.
2) 그래서 최근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두는 방식인 **인메모리 컴퓨팅**이 등장했다. 이 방식은 모든 데이터를 **디스크**에 두는 **온디스크 컴퓨팅**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빨라서 데이터의 집합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때에 주로 사용된다.
   ⇒ 당연히 '인메모리 컴퓨팅'이 '온디스크 컴퓨팅'에 비해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보면 온디스크 컴퓨팅을 사용할 이유는 더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더 읽어 보자.

 # 문단2 : 인메모리 컴퓨팅과 온디스크 컴퓨팅의 접근 기법

1) **인메모리 컴퓨팅**은 컴퓨터가 켜질 때 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복사한 후 CPU가 메모리에만 접근하며 컴퓨터가 꺼질 때에는 데이터를 다시 디스크로 옮기는 과정을 거친다.
   ⇒ 인메모리 컴퓨팅은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두는 방식이라 했지만, 시종일관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구동될 때마다 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복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2) 메모리의 저장 용량은 디스크에 비해 작으므로 인메모리 컴퓨팅을 위해서는 저장 공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 메모리는 CPU의 접근 속도가 빠른 대신에 저장 용량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따라서 인메모리 컴퓨팅에서는 저장 공간의 효율적 관리에 관심을 둔다.
3) 반면 **온디스크 컴퓨팅**은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옮겨 두는 인메모리 컴퓨팅과 달리]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만 메모리에 임시로 옮겨 두는 방식을 따른다.
   ⇒ 온디스크 컴퓨팅이라고 아예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만을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해 둔다.
4)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디스크로의 접근 횟수를 줄여야 한다.
   ⇒ 온디스크 컴퓨팅의 경우 CPU의 접근 속도가 비효율적인 디스크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 두기 때문에, 디스크로의 접근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5) 이러한 특성은 데이터베이스에 부속되어 있는 인덱스의 형태에 차이를 가져왔다.
   ⇒ 즉 인메모리 컴퓨팅의 인덱스는 저장 공간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 온디스크 컴퓨팅의 인덱스는 디스크로의 접근 횟수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앞으로 둘의 차이점에 주목해야겠다.
6) **데이터베이스**에 담기는 개별 데이터를 **레코드**라 하며, 레코드에는 해당 레코드를 지칭하는 고유한 값인 **키**와, 저장 위치를 알려 주는 **주소**가 달려 있다. **인덱스**란 책에 있는 색인 정보처럼 원하는 레코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참조 정보를 말한다.
   ⇒ '인덱스'는 우리가 원하는 레코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참조 정보다.
7) 인덱스가 없으면 CPU가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안의 수많은 레코드들을 일일이 검색, 대조해 가며 찾을 수밖에 없다.
   ⇒ 가령 책에도 색인 정보가 없다면, 수천 페이지를 일일이 읽어 보며 비효율적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다.

 # 문단3 : 온디스크 컴퓨팅의 B 트리 인덱스

1) 온디스크 컴퓨팅은 **B 트리 인덱스**를 사용하며 이는 디스크에 저장된 채 사용되는 레코드들과 달리 메모리로 옮겨져 사용된다.
   ⇒ 온디스크 컴퓨팅이 'B 트리 인덱스'를 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디스크로의 접근 횟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 온디스크 컴퓨팅에서 인덱스는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옮겨져 사용되기 때문에, 온디스크 컴퓨팅의 메모리에는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와 B 트리 인덱스가 담겨 있다.
2) **B 트리**는 개별 레코드의 키와 주소를 묶은 키-주소 쌍들을 여러 노드에 나누어 저장한 형태를 띤다. **노드**는 인덱스에서 단계적으로 분기되는 저장 공간이다.
   ⇒ '노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림>과 예시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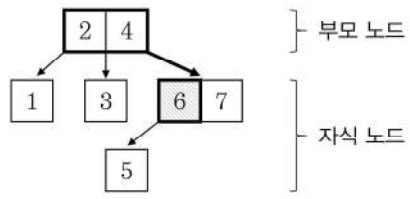
<그림>

3) 예를 들어 1부터 7까지의 키로 구분되는 일곱 레코드가 있다고 하자. <그림>은 키-주소 쌍 중 키만 표기한 B 트리이다. 가장 위의 노드인 **부모 노드**에 키가 2인 키-주소 쌍, 키가 4인 키-주소 쌍이 담겨 있다.
   ⇒ <그림>에 대응해서 이해해 보자. 보아하니 키가 각각 2, 4인 키-주소 쌍이 담긴 가장 위의 노드가 '부모 노드'이다.
   [주목] 편의상 키-주소 쌍 중 키만 표기한 것이지, B 트리 인덱스에는 키-주소 쌍 전체가 담긴다는 것을 잊지 말자.
4) 이럴 때 부모 노드에 담긴 키보다 작은 것[→ 키가 1인 키-주소 쌍]은 왼쪽의 **자식 노드**에, 큰 것[→ 키가 6, 7인 키-주소 쌍]은 오른쪽의 자식 노드에 담는다. 키 값들의 중간에 해당하는 키-주소 쌍이 있으면 3의 경우처럼 그 중간으로 분기된다.
   ⇒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림>에 대응해 가면서 이해하면 되겠다.
5) 키가 6인 레코드를 CPU가 요청하면 부모 노드부터 검색하여 없음을 확인하고, ……
   [맥락 짚기] 지금부터 B 트리 인덱스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기술 지문의 핵심은 해당 기술의 과정을 순서대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
   ⇒ 먼저 요청 키를 부모 노드에서 검색한다. <그림>의 부모 노드에는 키가 6인 키-주소 쌍이 없다. 그러니 자식 노드로 내려가야 할 텐데……
6) …… 2, 4보다 6이 크다는 점에서 오른쪽 하위의 자식 노드를 검색하여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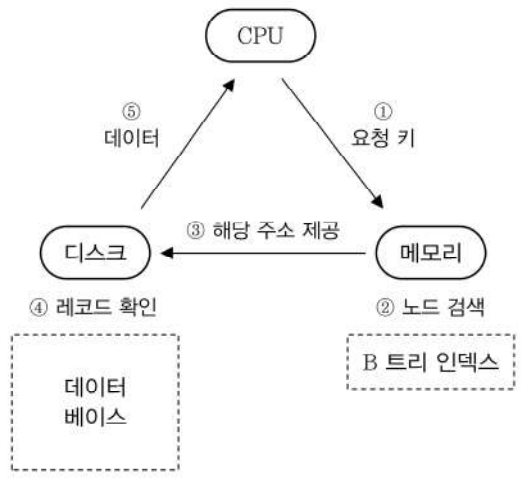
키가 6인 주소를 찾아낸다.

⇒ 이때 아무 자식 노드로 내려가지 않는다. 부모 노드보다 키가 작으면 왼쪽 하위의 자식 노드에, 부모 노드보다 키가 크면 오른쪽 하위의 자식 노드에 키-주소 쌍이 담기기 때문에 이 규칙에 따라 오른쪽 하위의 자식 노드를 검색해 보면 된다.



7) 이렇게 수차례 분기를 따라가며 검색, 대조하면 요청받은 키에 해당하는 주소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소[→ 요청받은 키-주소 쌍의 주소]로 디스크에서 해당 레코드를 찾아 그곳에 담긴 데이터를 CPU에 제공한다.

⇒ 키-주소 쌍을 통해 레코드의 위치를 확인한 만큼, 이제 실제로 해당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다. 온디스크 컴퓨팅에서는 데이터가 전부 디스크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레코드 역시 디스크에서 찾을 수 있다. 온디스크 컴퓨팅의 처리 과정을 정리해 보자.



8) 이처럼 B 트리 인덱스를 사용하면 디스크에 한 번만 접근해도 된다.

⇒ B 트리 인덱스를 통해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기에 디스크에 한 번만 접근해도 충분하다. 디스크로의 접근 횟수를 줄이려는 온디스크 컴퓨팅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겠다[문단2-4)].

 # 문단4 : 인메모리 컴퓨팅의 T 트리 인덱스

1) 인메모리 컴퓨팅은 **T 트리 인덱스**를 사용한다. **T 트리**는 저장 용량을 줄이기 위해 키-주소 쌍 대신 주소만 담는다.

⇒ 인메모리 컴퓨팅이 'T 트리 인덱스'를 택한 것은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문단2-2)]. 그렇기 때문에 키-주소 쌍이 아니라 주소만 저장하는 것이다.

2) T 트리의 한 노드에는 B 트리처럼 여러 개의 주소가 담길 수 있는데, 이때 노드의 저장 공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담는다. 중간에는 주소들이 나열되고 왼쪽 공간에는 그 노드에 담겨 있는 주소에 해당하는 키들 중 최솟값이, 오른쪽 공간에는 최댓값이 담긴다.

⇒ 중간에는 주소들이 나열되나, 양옆의 부분에는 주소가 아닌 키들 중에서 최솟값과 최댓값이 담긴다[→ 네 번째 문제 <보기>에 주어진 예시를 참고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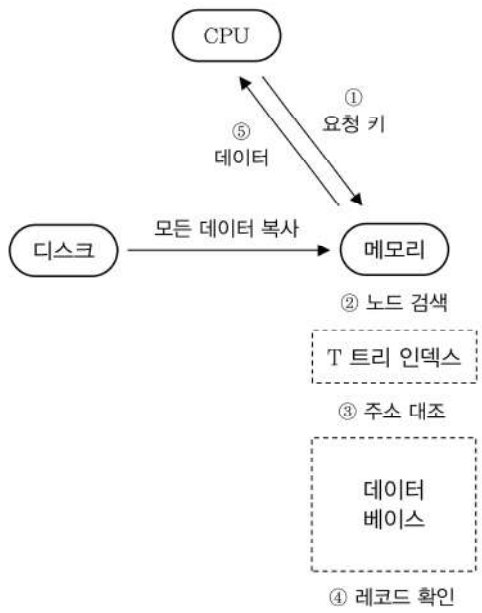
3) T 트리를 사용할 때에는 CPU의 요청 키를 부모 노드에서부터 찾되 키가 노드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 있지 않으면 [B 트리 인덱스와 같은 규칙에 따라] 자식 노드로 옮겨 검색하는 방법을 따른다.

[맥락 짚기] 이번에는 T 트리 인덱스에 CPU가 접근했을 때의 과정을 살펴보자.

⇒ B 트리와 마찬가지로 왼쪽 하위의 자식 노드에는 부모 노드보다 작은 키를 가진 주소가 담기고, 오른쪽 하위의 자식 노드에는 부모 노드보다 큰 키를 가진 주소가 담긴다. 키들 중 최솟값은 왼쪽에, 최댓값은 오른쪽에 담긴다는 점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4) 만일 요청 키가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 있다면 검색을 멈추고 그 노드에 있는 주소들로 [메모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들을 하나씩 찾는다. 그리고 그중 요청 키와 같은 키를 지닌 레코드의 데이터를 CPU에 제공한다.

⇒ 인메모리 컴퓨팅은 구동 시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로 옮기는 만큼 데이터베이스 역시 메모리에 위치해 있다. 디스크에 접근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레코드를 하나씩 찾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온디스크 컴퓨팅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디스크에 단 한 번만 접근하였다.]. 인메모리 컴퓨팅의 처리 과정을 정리해 보자.



5) B 트리는 노드의 양쪽 끝과 키들 사이에서 분기될 수 있으므로 한 노드에 담긴 키가 n개일 때 그 하위에 최대 n+1개의 노드가 분기되는 형태를 띤다.

⇒ 이는 부모 노드에 담긴 모든 키 사이사이에 자식 노드가 분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3-4)]. 이렇게 많은 분기가 이루어진 것은 필요한 키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디스크에는 한 번만 접근하기 위함이다.

6) 이와 달리 T 트리는 키들 사이에서 분기될 수 없어서 항상 최대 2개의 노드로만 분기되는 형태를 띤다.

⇒ T 트리는 애초에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의 키에 해당하는 모든 주소들을 중간 부분에 담기 때문에 항상 최대 2개의 노드로만 분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 키에 따라 그 범위에 있는 레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하나 다 검색해 봐야 한다[문단4-4)].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17] 예술

사실주의 회화의 특징과 의의

*** 지문 평가**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대두된 '사실주의'의 관점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예술 지문이다. 낭만주의가 추구한 바는 무엇이었는지, 사실주의가 그것에 대해 왜 반발하였고 사실주의가 추구한 바는 무엇이었는지 지문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서양 미술 – 사실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쿠르베, 「돌 깨는 사람들」, 추한 것, 진실, 인상주의

*** 지문 분석**

 # 문단1 :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1) 회화의 영역에서 사실주의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낭만주의에 반발하며 등장하였다.

⇒ 두 가지 예술 사조를 화제로 제시하고 있다.

[맥락 짚기]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차이점을 대조하되, 중심 화제인 사실주의에 초점을 맞춰 읽어 나가도록 하자.

2) 그 전[→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성행했던 **낭만주의**가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주제를 통해 인간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

⇒ '낭만주의'는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성행했던 예술 사조다. 이름대로 낭만적인 것들, 즉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주제에 관심을 둔다.

⇒ 이러한 주제들은 실제로는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그 표현 목적도 현실의 아름다움이 아닌 초월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데에 있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자.



들라크루아, 「호랑이 사냥」

3) …… **사실주의**는 현실의 세계에서 포착한 경험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 '사실주의'는 19세기 중반에 새로이 등장한 예술 사조다. 이는 낭만주의와는 반대로 현실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려 했다.

⇒ 이때 '경험적 정보'는 화가의 실제 경험을 뜻하므로 주제와 관련이 깊고, '시각적 정보'는 화가의 눈에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뜻하므로 표현 방식과 관련이 깊겠다.

 # 문단2 : 쿠르베의 사실주의

1) "천사[→ 낭만주의의 주제]를 내 눈앞에 데려오면 그제야 천사를 그리겠다." 이는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화가인 **쿠르베**가 남긴 말이다.

⇒ '쿠르베'는 사실주의 화가겠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제로 삼겠다는 사실주의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 문단1-2)에서 확인했듯, '천사'는 낭만주의가 추구했던 환상적인 주제를 가리킨다. 사실주의는 이 같은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자.

2) 쿠르베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표현하겠다는 신념에 따라 낭만주의의 비현실적 주제를 거부했으며, 대상을 이상화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때 그 자체로 내밀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다.

⇒ 여기까지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주요 대조점을 정리해 보자.

낭만주의	⇔	사실주의
이국적, 환상적 주제 이상화와 과장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표현		현실적 주제 있는 그대로의 묘사 현실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

3) 예컨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돌 깨는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 소년과 노인의 모습을 여과 없이 화폭에 담아낸 그림이다.



쿠르베, 「돌 깨는 사람들」

⇒ 어린 소년과 노인은 '현실적 주제'이자 '경험적 정보',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담아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묘사'이자 '시각적 정보'라고 볼 수 있겠다. 도식으로 정리해 보자.

경험적 정보	+	시각적 정보
현실적 주제		있는 그대로의 묘사

↘ ↙

사실주의의 목표 구현
현실 세계 속 대상의 내밀한 의미 표현

4) 낭만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은 결코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없는 **'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사실주의의 현실적 주제에 대한 낭만주의의 비판이다. 이를 통해 예술의 소재를 판단하는 낭만주의의 기준이 '아름다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문단1-2)].

5) 그러나 쿠르베에게 이들의 모습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가난이라는 현실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진실'**인 까닭에 예술 작품의 주제로서 손색이 없었다.

⇒ 낭만주의의 비판에 대한 쿠르베의 반박이다. 이를 통해 예술의 소재를 판단하는 사실주의의 기준이 '진실'의 유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문단3 : 사실주의의 주제와 표현 방식 수용

1) 당시 낭만주의를 옹호하는 다수의 비평가들과 감상자들은 쿠르베의 [사실주의] 작품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그가 그린 채석장 노동자의 모습[→ 현실적 주제]이 그림 속 돌멩이보다도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혹평하였다.

⇒ 앞서 살펴봤듯 낭만주의는 초월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쿠르베의 그림을 '추한 것'으로 보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맥락 짚기] 관점 주체가 교차하고 있으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자. 여기서는 '낭만주의 = 다수의 비평가들과 감상자들'의 입장에서 사실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2) 그럼에도 현실과 유리된 당대의 예술[→ 낭만주의]에 불만을 품고 있던 특정 화가들은 쿠르베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주제와 표현 방식의 양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주의를 수용하였다.

⇒ 다시 사실주의의 입장으로 돌아왔다. '쿠르베 = 특정 화가들 = 사실주의'로 이해하고 읽어 나가자.

3) 그들은 무엇보다 사회에 만연한 모순을 작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산업 혁명이 초래한 사회 변화의 이면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계층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려 하였다.

⇒ 쿠르베가 채석장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가난이라는 '진실'을 보여 주었듯, 사실주의를 받아들인 화가들 또한 산업 혁명이 초래한 소외 계층의 모습을 그려 냄으로써 현실의 부조리라는 '진실'을 보여 주고자 했다.

4) 그들은 또한 보이는 그대로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계가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졌는데, ……

⇒ 쿠르베가 현실을 여과 없이 화폭에 담아내려 노력했듯, 이들 역시 인간의 시각 작용과 관련해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했다.

주제	산업 혁명 이면의 소외 계층 현실의 부조리 고발
표현 방식	보이는 그대로의 세계 표현 시각 작용에 대한 탐구

5) …… 그 탐구 결과는 19세기 후반 **인상주의**가 등장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세계가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탐구는 훗날 등장한 '인상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꿔 말해 인상주의는 표현 방식에 주목한 예술 사조로서, 인간의 시각 작용을 예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했다.

 # 문단4 : 사실주의가 20세기 이후 미술에 미친 영향

1) 20세기에 이르러 사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새로운 예술 사조들이 대두함에 따라, ……

⇒ 20세기에는 사진 기술이 발전하며 대중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상을 손쉽게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자, 과거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등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 사조가 등장했다.

2) ……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 했던 전통적 의미의 사실주의는 자연스럽게 미술사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 전통적 의미의 사실주의는 보이는 그대로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 해도 사진보다 더 진짜 같은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다. 즉 사실주의의 목표는 더 이상 20세기 이후 미술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주의가 표방했던 정신마저 오늘날 완전히 퇴색한 것은 아니다. 현대의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단 하나의 진실이라는, 사실주의의 전통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을 표현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계의 겉모습 뒤에 그림자처럼 숨겨진 진실을 각기 다른 감각으로 포착함으로써 서로 다른 모습의 진실들을 드러내려 한다.

⇒ 여기서 말하는 사실주의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 20세기 이후의 미술은 더 이상 진실을 단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감각으로 포착한 진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전통적 사실주의	⇨	사실주의의 정신
사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술사의 중심에서 밀려남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의 진실 포착

[주목] 결국 사실주의의 믿음과 방식은 낡은 게 되었으나, '진실'을 추구하는 사실주의의 정신만은 20세기 이후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이다.

4) 이처럼 진실을 더 이상 단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시대에도 예술가는 여전히 예술을 통해 진실의 실마리를 밝히고자 애쓰고 있는데, 이는 사실주의가 10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에 남긴 소중한 유산[→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 방식은 달라졌을지라도 20세기 이후 미술은 여전히 진실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사실주의가 남긴 유산이라는 마무리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8~21] 현대소설

김유정, 「금 따는 콩밭」

*** 수록 지문 평가**

비극적 현실 속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좇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몇몇 단어가 생소하긴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술술 읽을 수 있다. 서술의 초점이 여러 인물에게로 옮겨 가고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각 인물들의 판단과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읽자.

*** 수록 지문 분석**

 # 토막1 : 금을 찾기 위해 콩밭에서 굴을 파고 있는 영식

영식이는 일손을 놓고 소맷자락을 끌어당기어 얼굴의 땀을 훑는다. 이놈의 줄[→ 금광의 광맥]이 언제나 잡힐는지 기가 찼다. 흙 한 줌을 집어 코밑에 바싹 들이대고 손가락으로 샅샅이 뒤져 본다. 완연히 버력(= 광석을 캘 때 나오는, 광물 성분이 섞이지 않은 잡돌)은 좀 변한 듯싶다. 그러나 불통 버력[→ 소용없는 잡버력]이 아주 다 풀린 것도 아니었다. 말똥 버력(= 양파 모양으로 벗겨져 부스러지기 쉬운 버력)이라야 금이 온다는데 왜 이리 안 나오는지.

⇒ 영식은 지금 땅을 파면서 금맥을 찾고 있는 중이다. 혹시 금이 나올 기미가 있는지 살피면서, 금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초조해하고 있다.

곡괭이를 다시 집어 든다. 땅에 무릎을 꿇고 궁뎅이를 번쩍 든 채 식식거린다. 곡괭이는 무작정 내려찍는다.[→ 금을 찾기 위해 굴을 파는 모습]

바닥에서 물이 스미어 무르팍이 흥건히 젖었다. 굿(= 광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손을 보아 놓은 구덩이) 엎은 천판(= 갱도나 채굴 현장의 천장)에서 흙 방울은 내리며 목덜미로 굴러든다.[→ 땅을 파고 들어가 갱도를 만들어 놓은 채 일하고 있는 중이다. 바닥에는 물이 배어들고, 위에서는 흙이 떨어진다.] 어떤 때에는 위 벽의 한쪽이 떨어지며 등을 탕 때리고 부서진다. 그러나 그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금을 캔다고 콩밭 하나를 다 잡쳤다. 약이 올라서 죽을 둥 살 둥, 눈이 뒤집힌 이판이다.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 곡괭이 자루를 한번 꼬나 잡더니 쉴 줄 모른다.

⇒ 지금 영식이 파고 있는 것은 콩밭이다. 경작을 해야 할 콩밭을, 금을 캐겠다고 망쳐 놓았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악에 받친 영식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 토막2 : 자신을 꾄 수재에 대한 영식의 심리

등 뒤에서는 흙 긁는 소리가 드윽드윽 난다.[→ 영식 말고 다른 누군가가 같이 굴을 파고 있다. 뒤에 나오는 수재다.] 아직도 버력을 다 못 친 모양. 이 자식이 일을 하나 시졸 하나[→ 시조창을 하듯이 일이 느리다는 의미]. 남은 속이 바직바직 타는데 웬 뱃심(= 염치나 두려움이 없이 제 고집대로 버티는 힘)이 이리도 좋아.

영식이는 살기 띤 시선으로 고개를 돌렸다. 암말 없이 수재를 노려본다. 그제야 꾸물꾸물 바지게에 흙을 담고 등에 메고 사다리를 올라간다.

⇒ 수재는 영식의 살기 어린 재촉을 받고서야 땅 위로 흙을 버리러 올라간다. 초조한 영식과는 달리 수재는 느긋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굿이 풀리는지 벽이 우찔하였다. 흙이 부서져 내린다. 전날이라면 이곳에서 아내 한 번 못 보고 생죽음이나 안 할까 털끝까지 쭈뼛할 게다. 그러나 인젠 그렇게 되고도 싶다. 수재란 놈하고 흙더미에 묻히어 한껍에 죽는다면 그게 오히려 날 게다.

이렇게까지 몹시 몹시 미웠다.

⇒ 어제만 같았어도 갱도가 무너져 생매장을 당할 게 두려웠겠으나 지금은 차라리 수재와 함께 땅에 매장되는 게 나을 성싶은 것이다. 상황에 대한 절망감과, 수재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놈 풍 치는 바람에[→ 수재가 허풍을 부리는 바람에] 애꿎은 콩밭 하나만 결딴을 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낭패다. 세 벌 논도 못 맸다.[→ 영식이 수재를 미워하는 이유다. 수재가 콩밭에서 금을 캐자고 영식을 꼬드기자, 영식은 그 말에 따라 콩밭을 다 파헤쳐 놓은 데다가 논일도 하지 않은 것이다.] 논둑의 풀은 성큼 자란 채 어지러이 널려 있다. 이 기미를 알고 지주는 대로 하였다. 내년부터는 농사질 생각 말라고 발을 굴렀다.[→ 게다가 그 논은 영식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지주로부터 소작을 받은 논이다. 기껏 소작을 내주었는데 논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지주로서는 노할 만하다. 그러니 영식은 내년부터는 소작도 부치지 못하게 생긴 상황이다.] 땅은 암만을 파도 지수가 없다.[→ 땅은 계속 파는데도 금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만해도 다섯 길은 훨씬 넘었으리라. 좀 더 지펴야 옳을지[→ 깊게 파야 할지] 혹은 북으로 밀어야 옳을지[→ 방향을 바꿔야 할지], 우두커니 망설거린다. 금점 일에는 풋둥이[→ 애송이]다. 입때껏 수재의 지휘를 받아 일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역시 그러해야 금을 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칙칙한 짓은 안 한다.[→ 이제부터는 수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재에 대한 반감 때문이겠다.]

"이리 와 이것 좀 파게."

그는 어쓴 위풍을 보이며 이렇게 분부하였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 손을 털며 뒤로 물러선다.[→ 수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물러나는 모습이다.]

수재는 군말 없이 고분하였다. 시키는 대로 땅에 무릎을 꿇고 벽채로 군버력을 긁어낸 다음 다시 파기 시작한다.[→ 영식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순순히 그 말을 따르는 것이겠다.]

⇒ 수재에 대한 영식의 미움이 나타나 있다. 영식이 수재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콩밭을 파헤쳐 금을 캐자고 영식을 꼬드겼는데 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사를 다 포기하고 금을 찾는 데 몰두했는데, 금이 나오지 않으니 큰 낭패다. 게다가 올해의 농사만 망친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소작조차 부치기 어려워진 상황이, 소작농인 영식의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든다.

 # 토막3 : 영식과 마름의 대화

영식이는 치다 나머지 버력을 짊어진다. 커단 걸대를 뒤룩거리며 사다리로 기어오른다. 굿문을 나와 버력더미에 흙을 마악 내치려 할 제,

"왜 또 파. 이것들이 미쳤나 그래!"

산에서 내려오는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과 맞닥뜨렸다. 정신이 떠름하여(= 얼떨떨한 느낌이 있어) 그대로 벙벙히(= 어리둥절하여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섰다. 오늘은 또 무슨 포악을 들으려는가.

"말라니까 왜 또 파는 게야."[→ 마름은 이미 여러 차례 영식에게 땅을 그만 파라고 경고했는데도, 영식이 그 말을 듣지 않은 모양이다.]

하고 영식이의 바지게 뒤를 지팡이로 꽉 찌르더니,

"갈아먹으라는 밭이지, 흙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미친것들아. 콩밭에서 웬 금이 나온다구 이 지랄들이야, 그래."

하고 목에 핏대를 올린다. 밭을 버리면 간수 잘못한 자기 탓이다.[→ 이전까지는 주로 영식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서술이 이루어졌는데, 이 대목에서는 마름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서술이 나타난다.] 날마다 와서 그 북새를 피우고 금하여도 다음 날 보면 또 여전히 파는 것이다.

"오늘로 이 구뎅이를 도로 묻어 놔야지, 낼로 당장 징역 갈 줄 알게."[→ 지주의 밭을 망쳐 놓았으니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너무 감정에 격하여 말도 잘 안 나오고 떠듬떠듬거린다. 주먹은 곧 날아들 듯이 허구리께서 불불 떤다.

"오늘만 좀 해 보고 그만두겠어유."

영식이는 낯이 붉어지며 가까스로 한마디 하였다.

⇒ 영식이 파 놓은 콩밭은 지주의 밭이다. 소작농인 영식이 소작을 부치는 지주의 콩밭을 망쳐 놓았으니, 마름 역시 함께 책임을 지게 생긴 판이라 몹시 분노하고 있다. 마름은 콩밭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징역'을 살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콩밭을 성실히 경작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지 않은 영식의 행동이, 농촌의 부를 쥐고 있는 지주와 식민지 사회의 치안 권력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콩밭'이 그저 농민으로서의 노동의 장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식민 질서와도 결부된 소재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영식은 수재가 콩밭을 파헤쳐 금을 찾자며 자신을 꾄 일과, 아내가 이를 부추긴 일을 떠올리면서 반드시 금을 찾겠다고 다짐한다.

 # 토막4 : 남편에 대한 영식 아내의 심리

남편[→ 영식]은 진흙투성이를 하고 내려왔다. 풀이 죽어서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고 아랫목에 축 늘어진다.

이 꼴을 보니 아내는 맥이 다시 풀린다. 오늘도 또 글렀구나.[→ 이 대목에서는 아내의 내면이 초점화되어 서술되고 있다.] 금이 터지면은 집을 한 채 사 간다고 자랑을 하고 왔더니 이내 헛일이었다. 인제 좌지가 나서 낯을 들고 나갈 염의조차 없어졌다.

⇒ 영식 아내는 곧 금을 찾을 것이라고 이웃에 자랑하고 다녔는데, 남편이 계속 허탕을 치다 보니 이웃에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것이다.

남편에게 저녁을 갖다 주고 딱하게 바라본다.

"인제 꿔 온 양식도 다 먹었는데……."

"새벽에 산제(= 산신령에게 드리는 제사)를 좀 지낼 텐데 한 번만 더 꿔 와."

남의 말에는 대답 없고 유하게 흘게 늦은 소리뿐. 그리고 드러누운 채 눈을 지그시 감아 버린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

"죽거리두 없는데 산제는 무슨……."

"듣기 싫어, 요망맞은 년 같으니."

이 호통에 아내는 그만 멈씰하였다. 요즘 와서는 무턱대고 공연스레 골만 내는 남편이 역 딱하였다. 환장을 하는지 밤잠도 아니 자고 소리만 빽빽 지르며 덤벼들려고 든다. 심지어 어린것이 좀 울어도 이 자식 갖다 내꾼지라고 북새를 피우는 것이다.

⇒ 영식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다. 또한 영식이 극도의 초조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며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을 만큼 궁지에 몰린 상황을, 일확천금을 통해 단번에 모면해 보려는 것이다.

저녁을 아니 먹으므로 그냥 치워 버렸다. 남편의 영을 거역키 어려워 양근댁[→ 그동안 영식네가 양식을 꾸어 온 이웃]한테로 또다시 안 갈 수 없다. 그간 양식은 줄곧 꾸어다 먹고 갚도 못하였는데 또 무슨 면목으로 입을 벌릴지 난처한 노릇이었다.

⇒ 아내는 금을 캐 오지 못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당장의 생계나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너무나 민망하기도 하다.

려 있는 터라서 누군가가 일확천금을 했다는 소리는 늘 듣고 있었다. 영식은 수재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수재는 거듭해서 영식을 찾아와 갖은 장담을 하며 충동질을 한다. 거기에 옆에 있던 아내까지 욕심을 부리면서 영식을 부추기자 영식도 그만 넘어가 콩밭을 파게 되었던 것이다.

금을 찾지 못해 울분에 가득 찬 영식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산제를 지낼 쌀을 꿔 오라고 시킨다. 저녁도 거른 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닭이 두 홰를 치자 새벽같이 떡시루를 이고 콩밭으로 나가 산신께 축원을 한다. 영식이 축원하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금도 캐지 못하면서 자꾸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진다. 그날 아내가 점심을 이고 콩밭으로 나갔을 때, 영식과 수재는 한바탕 싸워서 상처가 나고 코피를 흘린 상태였다. 아내는 분김에, 콩밭에서 금을 따는 쑥맥들이 있냐고 비아냥거린다. 그러자 분노에 눈이 뒤집힌 영식이 달려들어 아내를 때리고 걷어차기 시작한다. 수재는 자기에게도 조만간 불똥이 튈 것을 직감하고, 굴속에서 엉뚱한 흙을 손에 가득 쥐고 나와 금줄을 잡았다고 허풍을 친다. 영식과 아내가 울고 웃고 하는 사이에, 수재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 오늘 밤에 당장 달아날 궁리를 한다.

 # 이해와 감상

금점이 유행하던 1930년대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금점으로 구르면서 허랑방탕한 인물이 된 수재의 꼬임에 넘어간 무지하고 가난한 농민 영식이 일확천금의 욕망에 사로잡혔다가 절망적 상황에 빠지는 이야기로, '콩밭에서 금을 딴다'라는 제목부터가 당대 사회의 모순을 희화화하여 비판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몇 인물들이 궁지에 몰리고 파멸하는 표면적인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당대 농촌 사회의 열악한 현실과 구조적 모순에 눈을 돌리게 한다는 문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 참고 자료**

 # 작품 전체 줄거리

영식은 콩밭에 굴을 파고 곡괭이질을 하고 있다. 굴이 무너지면 흙에 깔려 생죽음을 당할 만큼 깊이 파고들었는데도, 여전히 금은 나올 기미가 없다. 영식은 악에 받쳐 수재를 함부로 대한다. 콩밭 아래에 틀림없이 금맥이 있다고 충동질을 한 장본인이 수재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콩밭에 나타난 마름은 영식을 징역 보내겠다고 포악을 떤다. 영식은 더 이상 소작을 해 먹을 수도 없게 된 궁지에 몰려 수재를 노려본다.

수재는 한참 전부터 영식에게 콩밭 밑에 묻힌 금을 캐자고 꾀었었다. 산너머 금광의 금맥이 콩밭 밑으로까지 뻗어 나와 있다는 것이다. 영식은 금에 대한 욕심 따위를 지녀 본 적은 없었으나, 주변은 한창 금광 열풍에 휩쓸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7] 고전시가

(가) 박인로, 「누항사」

*** 수록 지문 평가**

벼슬에서 물러나 시골에서 지내던 작가가 오랜 벗인 한음 이덕형을 찾아갔는데, 이덕형이 그에게 시골에서 지내는 삶이 어떤가 묻자 대답 대신 지은 작품이 「누항사」라고 한다. '누항사'라는 제목은 '어려운 시골 살림을 읊은 노래'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전란 이후 지방 사족(士族)이 처한 곤궁한 형편을 생생하게 그리면서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는 가운데 충효와 형제 사이의 화목, 벗들과의 신의를 추구하며 살겠노라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 수록 지문 분석**

 # 들어가기 전

수록 지문 이전에, 화자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농사짓기에 나섰지만 소를 빌리는 데 실패한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온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 토막1 : 처지를 한탄함

와실(蝸室, 작고 초라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 집에 돌아와 힘없이 늘어져 있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북창(北窓)을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오디새는 이내 한(恨)을 돕는구나

⇒ 24절기 중 모내기 철에 해당하는 것이 곡우(穀雨)인데, 뻐꾸기와 오디새는 곡우를 알리는 새라고 한다. 화자의 사정을 모르는 오디새는 모내기 철임을 알리고,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된 화자는 오디새 울음소리를 들으니 신세가 더 한탄스럽다.

아침 내내 한탄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없이 들리도다

→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게 들리는구나.

⇒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농사일을 하며 흥겹게 농가를 부르고 있지만, 농사를 못 짓게 된 화자는 흥이 날 리 없다. '농가'는 화자의 기분과 대조되는 분위기의 소재라 할 수 있다.

세상 물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 내가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참고] 화자가 소를 빌리러 갔을 때, 소 주인이 다른 사람은 술과 안주를 정성껏 대접했다며, 에둘러 대가를 바라는 말을 건넸다. 곧 '세상 물정 모른'은 소를 빌리는 데도 술과 안주가 필요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말이다.

술 고기 있으면 권당(=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벗도 많으련만

⇒ 남을 접대할 만한 재물이라도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화자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두 주먹 비게 쥐고 세태 없는 말씀에 모양조차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리고 말았거든

⇒ 가진 것도 없고 세태에 맞는 말주변도 없고 외양도 볼품없다는 말로 지난밤의 자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술과 안주를 가져갔거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추수철이 되면 꼭 인사치레를 하겠다는 식의 말주변이라도 발휘했어야 소를 빌릴 수 있었을 텐데…….

하물며 동곽 번간(東郭墦間, 성 동쪽 외곽의 무덤 사이)에 취할 뜻을 가질쏘냐

→ 하물며 동곽 번간에서 [고사의 인물 같은 행동을 해서] [술에] 취하겠다는 뜻을 가질쏘냐?

⇒ 『맹자』에 나오는 '동곽 번간' 고사와 관련된 구절이다. 화자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주변머리도 없다고 말하는 셈인데, 실은 그렇게 행동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 이해하는 편이 옳겠다.

[참고] '동곽 번간' 고사의 주인공은 매일 동문 밖 묘지를 기웃거리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얻어먹고 취한 것이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부귀한 이들과 사귀며 대접받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이 곧 높은 벼슬을 얻기라도 할 것처럼 말했다. 나중에 아내가 남편의 이런 행실을 알고서 몹시 부끄러워하며 울었다 한다. 『맹자』에서 이 고사는, 남에게 빌붙어 술에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귀한 이들과 어울려서 영달을 추구하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까운 저 쟁기는 날도 좋을시고

→ 아까운 저 쟁기는 [잘 갈아서] 날이 잘 서 있구나.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저 쟁기로는] 쉽게 갈 수 있으련만

빈방 반벽(半壁, 벽 가운데)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 소가 없으니 쟁기는 어디 쓸 일도 없이 벽에 덩그러니 걸려 있는 것이다.

 # 토막2 : 강호 자연에 대한 꿈을 다시 생각함

춘경(春耕, 봄철에 논밭을 가는 일)도 늦었으니 후리쳐 던져두자

⇒ 시기를 이미 놓쳤으니 일 년 농사를 그냥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강호(江湖) 한 꿈을 꾼 지도 오래러니

→ 강호 자연에 묻혀 지내는 삶을 꿈꾼 지도 [벌써] 오래되었더니

구복(口腹, 먹고살기 위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과 배)이 누(累)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 먹고사는 일이 원수라, 아아 [강호에 대한 꿈을] 잊고 있었구나.

⇒ 강호에 대한 꿈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먹고사는 데 정신이 없어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먹고살기 위한 농사를 포기하고 보니, 잊고 있었던 강호의 꿈이 새삼 떠오른 것이다.

기수(淇水) 물가 바라보니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빼어난 군자들아(= 중국 기수 강가의 푸른 대나무를 군자로 의인화하여 선비의 덕목을 나타낸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 낚싯대 하나 빌려스라

⇒ '기수 물가 바라보니 녹죽도 하도 할샤/ 빼어난 군자들아'라는 부분은 『시경』의 「기욱(淇奧)」이라는 시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화자는 지금 실제로 '기수 물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욱」의 구절을 끌어와서, '빼어난 군자'의 덕목을 몸소 보여 주는 '녹죽'에게 말을 건네는 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하나'를 자신에게 빌려 달라는 말은, 대나무가 표상하는 선비의 도리를 지키면서 강호 자연을 벗 삼은 안빈낙도의 삶[→ 흔히 낚시질하는 어옹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기욱」은 중국 기수 강가의 푸른 대나무를 군자로 의인화하여 대나무의 모습을 통해 선비가 가져야 할 덕목을 나타내고 있다. 「누항사」와 관련된 「기욱」의 일부를 읽어 보자.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구나./ 빼어난 군자들이여. 잘라서 갈고 쪼아 놓은 것처럼/ 굳세고 빛나며 점잖으니,/ 빼어난 군자들이여, 끝내 잊을 수 없구나.'

노화(蘆花,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이제는 평생 '강호 한 꿈'을 좇아 살겠다는 것이다.

무심(無心)한 백구(白鷗, 갈매기)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 무심한 백구가 [나더러] 오라 하겠으며 [오지] 말라 하겠느냐.

⇒ 설의법과 대구법이 함께 쓰인 '오라 하며 말라 하랴'는 '오라거나 말라거나 하는 말을 하겠느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맥을 생각해 보면 갈매기가 화자 자신에게 오라고 하지, 오지 말라고 하겠느냐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다툴 이 없을손 이뿐인가 여기노라

→ [서로 가지겠다고] 다툴 사람이 없는 대상은 풍월 강산뿐인가 생각하노라.

⇒ 풍월 강산을 차지하겠다고 화자와 다툴 사람이 없으니, 오롯이 풍월 강산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 토막3 : 유교적 덕목을 좇아 살겠다고 다짐함

이제는 소 빌리기 맹세(盟誓)코 다시 말자

→ 이제 다시는 소 빌리는 일은 하지 말자.

무상(無狀, 내세울 만한 공이 없음)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의지와 취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있으리마는

→ 초라한 이 몸에 무슨 대단한 의지나 지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세 이랑 밭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리로다

⇒ 얼마 안 되는 논밭을 농사짓지 못하는 채로 다 버려두고 굶을지라도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남의 것' 안에는 농사짓는 데 필요한 소도 포함된다. 화자는 '이제는 소 빌리기 맹세코 다시 말자'라고 다짐하고 있다.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 젓는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러하여 손을 친다 나아오랴

⇒ 화자는 '빈천'과 '부귀'를 의인화하여, 그것들이 자신에게 오거나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부귀를 누리거나 빈천으로 고생하는 것] 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인간(人間) 어느 일이 운명(運命) 밖에 생겼으리

⇒ 사람이 겪는 모든 일이 운명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다.

빈이무원(貧而無怨,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을 원망하지 않음)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 자신은 가난을 원망하지도, 자기 인생을 서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단사표음(簞食瓢飮,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음)에는 없노매라

⇒ 화자는 자신이 평생 살면서 '온포'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고 말한다.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형제 사이에 화목함) 신붕우(信朋友, 벗을 믿음으로 사귐) 그르다 할 이 뉘 있으리

→ 형제와 화목하고 믿음으로 벗을 사귀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이가 뉘 있으랴?

⇒ 유교 사회에서 '충효', '화형제', '신붕우' 같은 덕목을 실천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다. 문제는 그런 윤리적 덕목을 추구하는 것이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건데, 화자는 어쨌든 먹고사는 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는 관심 두지 않겠다고 한다.

그 밖의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 '충효', '화형제', '신붕우'로 대표되는 유교적 덕목들을 제외한 그 밖의 일들[→ 먹고사는 문제 같은 일들]은 분수에 따르는 것이려니 하고 그냥 살겠다는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